

규제 없이도 효율적인 임대인 정보공개



이수준 역

부동산 수첩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전부이자 삶의 기반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세 시장은 오랫동안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세입자를 취약한 위치에 놓아 두었다. 대부분의 상품과 달리,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서만 봐도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갑’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관습적으로 부여되어 왔고, 중개인들은 또한 고객 관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임대인의 입장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객이 왕’이라는 소비 시장의 일관된 진리가 유독 통하지 않는 시장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반복해서 터진 전세 사기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이나 주변 시세에 의존한 판단은 종종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 특히 강릉발라 사태, 허위보증보험 가입, 명의 대여 등을 동원한 조직적 사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

적 위험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게 된 제도가 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택공급자로서의 건전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장치다.

그간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영역이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정보의 비대칭은 구조적 약자였던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도 대부분 경·공매시 이를 유예하거나 우선매수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사후 약방문 이자 오히려 끝까지 집주인의 책임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미룰 우려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이다.

계약을 앞둔 예비세입자는, 그 집의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보증사고가 난 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회피할 결

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임대인의 위험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조회 건수 제한이나 처리 시간 같은 실효성 문제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보유한 건전한 임대인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가진 상징성과 효과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임차인을 단순한 주거 약자가 아닌, ‘소비자’로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저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주거비 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고,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에게 공개되는 만큼,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여러 채 사거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매입하는 식의 무분별한 겹투자 행태에 심리적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이와같이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더 건강해진다. 경쟁 시장이 되어 갈수록 거품은 끼어들 틈이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의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이재명 정부, K-테크 운명 가를 ‘골든타임’ 될까



김지민 수첩

이혜민
(산업부)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내 전자·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 산업계의 시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국 첨단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쏠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업·기술 분야에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핵심 축으로 삼아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다. 1호 공약이었던 ‘반도체 산업 육성’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합산 100조

원을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공언했다. 선거 공약에는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한국 고유의 소비터 AI 개발’ 등도 담겨있다. 여기에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기업들의 발걸음은 이미 빨라졌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에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제품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는 퓨리오사AI의 대표 AI 반도체 ‘레니게이드’에 4세대 HBM 제품 ‘HBM3’를 공급 중이다. 곧 최신 HBM3E도 제공할 예정이다. AI 스타트업이 성장할수록 HBM 수요가 급증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신속히 반응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정부 출범 직후 과주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에 7000억 원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첨단전략산업 투자기금’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선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OLED를 앞세운 기술 반격의 골든타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한국 산업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다. 핵심 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디리스킹’ 전략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K-테크를 둘러싼 대규모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 정부의 첫 1년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

/hyem@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12일 (음 5월 1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자식이 웬 수라고 하더니 맞는 말. 4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2년생 이웃집 불구경에 정신을 빼가지 말도록. 84년생 행운이 오니 일이 잘 성사.



소

37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49년생 호랑이띠와 다투지 마라. 61년생 화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말도록. 73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 85년생 내일의 승진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호랑이

38년생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좀 더 노력. 50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관계를 더 좋게 한다. 62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4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86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조심하라.



토끼

39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51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63년생 아직보다는 유지를. 75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87년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보라.



용

40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뜻대로 진행. 52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4년생 첫눈에 반하는 아성이 나타난다. 76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행운이 활짝 열린다. 88년생 계획도 없이 일을 시작다가는 실패하기에 십상이니.



뱀

41년생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53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니. 65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어려움이 극복된다. 77년생 아직도 꿈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89년생 지나간 인연이 자꾸 거슬린다.



말

42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5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66년생 손재수이니 보중에 유의하라. 78년생 평소의 습관으로 늘 실수를 하게 된다. 90년생 불만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양

43년생 시작이 좋아 마무리도 산뜻. 55년생 뽕은 높 위에 나는 높 있으니 분발하라. 67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주려 온다. 79년생 저돌적인 처리로 배우자의 원망을 듣는다. 91년생 젊고 남은 세월이 있으니 꿈을 버리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필요한 날이다. 56년생 당신의 안부를 걱정하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68년생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80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재물이 들어온다. 92년생 젊은 재혼은 서두르다 불행으로 치 달을 수.



닭

45년생 조연도 사람을 보기며 해야 하는 법. 57년생 통친 고기는 이미 내 손에 없으니 안타까워 말라. 69년생 작은 상처가 쉽게 낫지 않아 속이 상한다. 81년생 둘러봐도 세상에 온전한 새것은 없다. 93년생 창업에 의외의 불행이 나타난다



개

46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58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0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 82년생 인생처불상봉(人生何處不相逢)이다. 94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는데.



돼지

47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59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71년생 졸적이 명품으로 둔갑하는 순간이 온다. 83년생 집안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 95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직장을 잃게 되니 신중해야.

김상회의四季

역(易)과 역(歷)

역(易)과 역(歷)은 발음이 같지만 한자는 변할 역(易)자와 지낼 역(歷)자는 다른 듯 비슷하다. 사주명리학점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주역을 말할 때는 변할 역(易)을 쓰고 책력 또는 달력을 말할 때는 지낼 역(歷) 자를 쓴다. 공통점은 순환법칙의 절대적 인자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점은 상수와 변수의 관계라는 것이다. 세상의 생성과 변화이치는 자연의 순환에서 본받는데 그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원리를 통찰하고 직관하여 인간사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묘수를 찾아낸다. 자연은 해와 달, 별들 움직임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끌어당기거나 밀친다.

그에 의해 만물이 생육되고 스러졌다가 다시 태동하여 생명이 순환하는 섭리를 발견했다. 거의 오차 없이 들어맞았다. 윤달과 윤년의 이치에서 달의 모양으로 날짜를 따지기가 더 쉬웠다. 왜냐, 달은 일정 주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눈으로도 금방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태음력’은 고대 여러 국가에서 역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가 춘추추동의 일정 주기로 한 바퀴 제 자리에 오는 양력과 달의 주기로 날짜 가는 법을 따지는 음력은 자연의 순환에 따른 변화 현상을 일치시키기에 과리가 있었다.

계속된 관찰결과 고대 천문학자의 통찰을 통해 19태양년과 235삭망월의 날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메 톤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그 주인공이다. 날짜를 따지는 역법인 태음력이나 태양력에서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삽입하는 날이나 주, 달이 들어가는 해를 말한다. 삽입하는 달을 정하는 방법을 치윤법(置閏法)이라고 한다. 일년 전 5월 1일과 올해 5월 1일이 태양력으로는 날짜는 같으나 음력으로 같은 천간과 지지를 갖지 못한다. 같은 날 같은 시라도 사주팔자가 다른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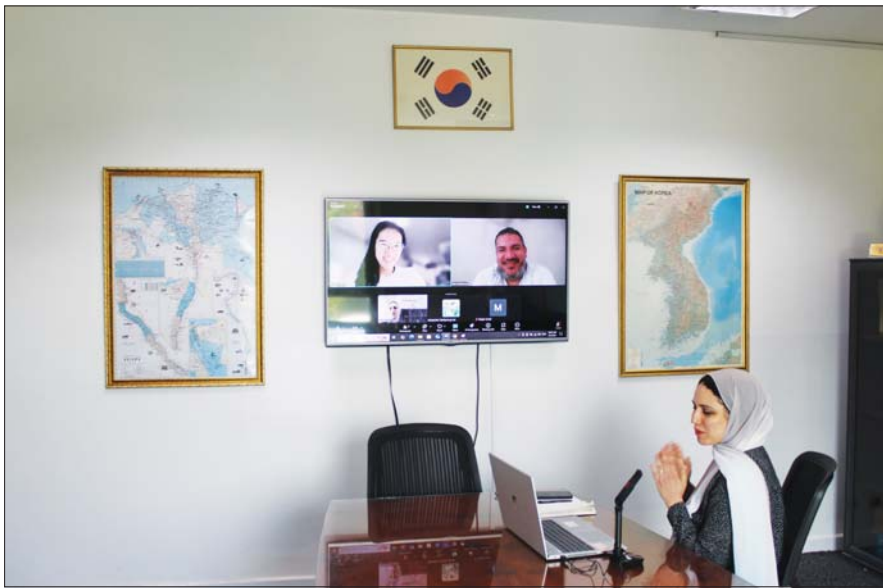
수출시장 다변화 총력… 美·中 대체·신흥국 진출 본격화

코트라, 대체시장 진출 전략보고서 릴레이 설명회, 화상상담회 집중 추진
강경성 “신정부 무역공약 뒷받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수출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1일 유망시장 전략제시, 정보 제공, 바이어 연결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 발간하는 ‘수출 유망시장 다변화 전략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통상 트렌드, 유망 품목, 진출전략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화상 상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보고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유망시장을 ▲미중 대체수요 유망시장 ▲글로벌 제조업 재편에 따른 유망시장 ▲산업화 고도화 수요 유망시장 등 3개 테마로 분류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품목을 제시

한다.

또 시장 변화 유형에 따라 팀코리아 활용, 경쟁우위 재포지셔닝, 기업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수출다변화 전략을 제시해 기업들이 미국 중심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

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이드를 담았다.

보고서 발간에 이어 6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대체시장 진출 전략 릴레이 설명회’를 서울 본사에서 개최한다. 미국·중국(12일), 베트남·인나·인도(19일), UAE·사우디·이집트(26일) 등 지역별로 본부장 또는 무역관장, 현지 전문가가 직접 방한해 통상이슈, 산업동향, 진출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통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6~7월 두 달간 대규모 화상 수출상담회도 집중 추진한다.

먼저 6월에는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된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대체시장 바이어 500개사와 1대 1 화상상담을 주선한다. 7월에는 지역 소재 400개 중소·중견기업과 신흥시장 바이어 600개사 간 상담회를 추가로 열어 수

도권을 넘어 전국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6월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 식품산업대전, 전기산업엑스포,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등 6개 전시·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약 400개사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수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진행되는 30개 전시회,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사항인 수출시장 다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수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양시, BTS 품고 K-POP 거점 도약

이달 한달간 대형 공연 잇따라 개최

고양시가 6월 한 달간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오프라인 ‘BTS FESTA’부터 제이홉의 월드투어 피날레, 진의 첫 팬콘서트까지, 고양시가 ‘글로벌 K-POP 공연거점 도시’로 부상하는 결정적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HOPE ON THE STAGE’의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다. 북미·아시아를 누빈 이번 투어의 피날레 무대가 고양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고양시가 글로벌 아티스트의 무대를 잇달아 유치해온 성과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같은 시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을 기념하는 ‘2025 BTS FESTA’ 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고양에서 열리는 이번 오프라인 FESTA는 단순 공연을 넘어 전시, 체험, 포토존 등 복합 문화 콘텐츠로 구성돼 도심 전체가 하나의 축제 무대로 전환된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관광정보센터, 킨텍스 광장, 일산서구청 주차타워 등 주요 거점에 BTS 콘셉트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이 도심 곳곳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시 전반을 테마화했다.

이 흐름은 6월 말에도 계속된다. 28~29일에는 진의 첫 단독 팬콘서트 ‘#RUNSEOKJIN_EP.TOUR’가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그의 글로벌 투어의 출발점이자, 팬들과의 첫 직접 소통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비수도권 특구, 외국인투자에 면적 풀어준다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시·도 요청 반영, 인센티브 강화도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이 조과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이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도별 면적상한이 적용돼 광역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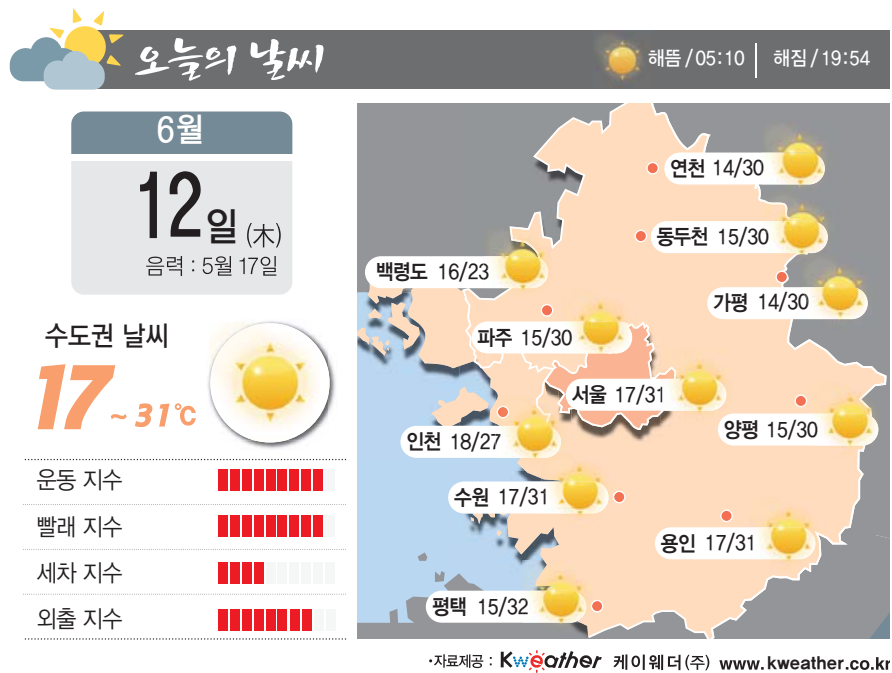
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했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올해 우수환경도서 30종 선정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 대상

환경부가 11일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주제 책(번역서 포함) 가운데 올해 2~3월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470종의 도서가 출품됐다. 이 중 선정된 우수환경도서 30종은 ▲유아용 4종 ▲초등 저학년(1~3) 6종 ▲초등 고학년(4~6) 4종 ▲중·고

등 6종 ▲성인용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도서는 전체 연령대에 걸쳐 크게 기후변화·탄소중립, 폐플라스틱 문제를 다뤘다.

환경부는 올해 우수환경도서 목록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전국 공공립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격오지 학교와 지역사회에는 우수환경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고 증정(30세트)한다.

또 올해 환경교육 주간(6월 2~8일)과 연계해 열린 북콘서트와 같은 행사

를 통해 우수환경도서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먼저 올 하반기에 전국 공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우수환경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역 사회 및 독서의 달(9월)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서영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도서 선정사업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과 실천력 향상에 기여했다”라며 “내년부터 2~3년 단위로 선정했던 우수환경도서 공모를 가능한 매년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환경도서가 널리 보급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美 LA 도심 야간 통행금지령 발동…10시간 동안 적용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공공안전 아닌 선동 택해” /사진 뉴시스

▲“전략에 공감 못 하면 떠나세요”… 구글, 핵심 부서도 ‘자발적 퇴사’
▲머스크父 “일론, 러시아서 로켓 사려했으나 거절당해”

▲시진핑 외동딸 33살 밍쩌 첫 외교무대 등장…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우크라 “러, 北 화성-11형 대포 개량… 기술적으로 다른 미사일”



새벽배송
소비자 만족도 '1위'
이커머스 더 커지나
L1

metro®

Life

삼양식품
밀양2공장 준공
세계 브랜드로
L2



취향저격 마음에 쏙~ 고급소재로 꿀잠 폭~ “집에서도 잘 때도 ‘자주’ 입어요”

①



집에서만 입는 통념 깬 파자마 출시
시어셔커, 피치스킨 등 여름원단 등
계절별 고급소재로 착용감 극대화

2030세대 중심 파자마 의류 성장세
세련되고 감각있는 잠옷으로 ‘인기’



①·② 이니셜이 각인된 자주 파자마.
③코튼 레이온 5부 파자마 세트.
④시어셔커 스트라이프 3부 파자마 세트.

집에서 나 홀로 입는 파자마도 이제는 유행을 따르는 아이템이 됐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파자마 파티 등이 성행하자, 파자마 의류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 파자마로 불리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제품이 있다. 바로 신세계인터내셔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가 선보이는 ‘자주 파자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신세계인터내셔널 ‘자주 파자마’

◆ 통념에서 탈피…국민 잠옷 등극

잠옷은 집에서만 입는 옷이라는 통념에 금이 갔다. 자주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색상, 고급소재를 사용한 자체 파자마 상품을 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잠옷하면 떠오르는 스타일에 변주를 줬다. 특히, 가벼운 집 근처 외출 시에도 입을 수 있을 만큼 패션성에 힘을 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 결과 자주 파자마는 2015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총 1800만 여장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 서울시 인구 전체가 약 두 벌씩 입을 수 있는 수량으로 자주 내에서도 전례 없던 판매고다.

인기에 힘입어 자주는 지난 2월 신상 파자마도 출시했다. 더워지는 날씨 환경에 맞춰 여름철 의류에 많이 사용되는 시어셔커, 피치스킨, 퓨어 코튼 등의 원단 소재를 활용했다. 색상은 노랑, 밝은 분홍, 연한 초록 등이다.

이번 여름에는 수면 시에도 외출 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여름 니트 소재인 ‘포인텔 세트’ 파자마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면 소재의 ‘아일렛 반팔 파자마 세트’, ‘썸머 더블 코튼 파자마 세트’ 등이 준비됐다.

◆ ‘블루오션’ 파마자 시장

자주 파자마 상품이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는 실내복에 불과했던 잠옷이 독립적인 하나의 패션으로 급부상하면서부터다. 여기에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파자마 파티 등과 같은 트렌드가 생기면서, 단순히 편안한 잠옷이 아닌,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세련되고 감각있는 디자인의 잠옷이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은 전 세계 잠옷 시장 규모는 2023년 136억 2000만 달러에서 2030년 265억 8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선택

트렌드에 트렌드가 더해졌다. 잠옷이 새로운 패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자주는 파마자 상품에도 커스터마이징(고객 맞춤화) 서비스를 접목하면서 본격적인 젊은 소비층 잡기에 나섰다.

자주 파자마 세트 구매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당 매장을 통해 이니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총 75가지 조합이 가능한 다양한 글자체와 색상 및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영문 이니셜부터 최대 7자 내외의 간단한 문구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새길 수 있다.

자주 관계자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와 신꾸(신발 꾸미기), 텃꾸(텀블러 꾸미기) 등 다양한 꾸미기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파자마에도 나만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자주 리브랜딩 팝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 진행했으나,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지난 3월부터 주요 매장 내 고정 서비스로 도입했다”고 서비스 론칭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이니셜 서비스 개시 이후, 자주 파자마 제품 중 인기 상품인 ‘시어셔커 파자마 세트’의 지난 3월~5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자주는 파자마 이니셜 각인 서비스를 수도권 5개 매장에서 전국 96개 매장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세계인터내셔널 자주 관계자는 “출시 이후부터 고객들의 리뷰와 의견,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파자마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파자마 하면 자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마케팅과 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브랜드 대표 히어로 제품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0년 이마트로부터 생활용품 브랜드 ‘자연주의’를 인수한 뒤, 이후 2012년 리뉴얼 과정을 거쳐 자주(JAJU)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자주 브랜드는 ‘자주 쓸수록 최상의 삶’이라는 철학 아래, 패션부터 홈리빙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채우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자주는 한국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리브랜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파자마에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접목
총 75가지 조합 ‘이니셜 서비스’ 선택
이니셜 개시 후 매출 50% 증가하기도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 육성
한국적 요소 재해석한 리브랜딩 추진도

②



④

메트로  한줄뉴스

▲삼성 김태훈, KBO 역대 6시즌 연속 10홀드까지 ‘-1’
/사진 뉴시스
▲김혜성, 우투수 나와도 선발 제외…교체 출전 1타수 무안타

▲잉글랜드, 세네갈에 1-3 역전패…아프리카팀에 첫 패배
▲‘가는 세월’ 서유석, 마포문화재단 제8대 이사장 취임

▲신영희 등 ‘판소리’ 보유자 12인 한자리에…합동공연 ‘득음지설’
▲“이제는 정말 못 올지도”…청와대 방문객 문전성시

SAMSUNG

Galaxy S25 Edge

Galaxy AI ✨



Beyond slim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Edge를 반값에, 파손 보장까지!

1년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 시 50% 잔존가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납 시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닷컴을 통해 자급제 갤럭시 S25 Edge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차월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원 작동 불가, 계정 미삭제 제품 제외 모두 반납 대상입니다.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